

안타까운 떠남 -내 곁의 두 시인

아해 김태형 (63, 조지아)

요즘은 백혈병, 뇌종양 등 소아암의 치료 결과가 좋아졌지만 1980년-1990년대엔 재발이 흔했고 사망률도 높아 소아암의 진단이 내려지면 부모님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 당시 내가 일하던 에모리(Emory) 대학교에선 신학대학 학생들이 졸업 전에 소아암 병동에서 삼 개월 정도 인턴을 했다. 학생들은 환아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놀아 주기도 하는 동안 아이들과 친근한 사이가 된다.

아이들은 가끔 곤혹스러운 질문을 한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암에 걸리게 해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이 질문은 나도 종종 받았지만 신학생들의 답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인다. 짧은 신학생들의 답변은 노년에 접어든 신학대학 교수들의 답변과 매우 달라 나를 놀라게 한다. 우선 노교수(老教授)들의 답변은 대개 이렇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네가 암에 걸렸단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잘 견디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이를 받아들이는 아이는 보지 못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 있느냐”라며 대들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는 잘 못한 것이 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울며불며 따지기도 한다. 이러고 나면 병동의 분위기는 사뭇 싸늘해진다. 지도교수가 병실을 떠나면 신학대학 학생이 다가와 울던 아이를 달래며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다. “아마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 거야, 너 같이 착한 아이를 하나님에게 어떻게 오래 병을 앓게 내버려 두시겠니? 하나님께서 잘못을 뉘우치시고 이렇게 좋은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을 여기 보내셨잖니. 그러니 네가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퇴원해서 학교에 돌아가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아이들은 표정이 밝아지면서 희망을 되찾고 힘든 항암치료도 아주 잘 견딘다.

나는 이처럼 암 병동에서 아이들이 던져오는 종교적인/철학적인 질문의 정답을 모른다. 오세영 시인이 “산에서 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나 자신 산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나는 될수록 아이들과 한마음으로 내가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이 되어 정성을 다할 뿐이다.

소아암 병동에서 생활하다 보면 환아들과 마음속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은데 때론 그들이 자기 부모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를 토해낸다. 하루는 백혈병 치료로 지쳐있던 중학생 혜은이가 말을 건네왔다. “선생님, 저는 죽음은 무섭지 않은데 죽음의 과정이 두려워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이제 열 살이 조금 넘는 소녀가 할 말인가? 벌써 죽음과 죽음의 과정을 분별하여 말하다니! 나는 오래도록 소아암 환자들과 생활해 신생아부터 청소년 연령층에 이르는 다양한 어린 나이의 죽음을 무수히 체험했다. 이들의 완치가 어려우면 고통이라도 없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으로 가슴 아파했다. 얼마 전 103세의 김형석 교수님이 “나는 어젯밤 잠자리에 들듯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암 병동의 아이들도 회복이 어려울 땐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듯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소아암 병동에 있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죽음을 가까이서 자주 목격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죽음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죽음의 의미를〈다음면에 계속〉〈전면에서 계속〉 아는 것은 아이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적어도 한 일곱 살은 돼야 죽음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소아암 병동에서 가끔 Code Blue(응급 심폐소생술 팀 호출 경보)가 울리면 잠자던 아이들도 다 깨고 조용하던 병동이 의사들, 간호사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에 소란해진다. 얼마 지나면 한쪽에선 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때론 여러 사람의 슬픈 곡성이 울려오기도 한다. 아래서 아이들은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죽음의 과정을 겪으며 한밤중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나 보다. 코드 블루를 아이들로부터 차단할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환자의 응급 상황은 성인 병동, 어린이 병동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다인실 일인실 격리실을 가리지 않는다. 코드 블루의 소동이 훅쓸고 지나간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들려준 말이 생각난다. “선생님, 참 우스워요. 지금 막 한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우리 병실에선 엄마들이 모여 술이나 한잔하자고 막 떠들어 대며 웃기도 해요. 참 이해 못할 광경이에요.”

내 환자 중에 이제는 천사가 된 두 시인이 있다. 허혜린(1993-2007)은 백혈병 환자로 국립암센터에서 1~2년을 같이 보냈다. 다재다능했던 혜린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렸지만, 특히 문학을 사랑했다. 틈틈이 시를 썼고 열세 살에 시집 한 권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내가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러 번 안부를 물어왔다. 사망하기 두 달 전 보내온 E-mail 편지는 한 편의 시(詩) 자체였다.

아름다운 사랑이란 부르는 것이 아니래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레는 가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는 거래요…/ 조그만 실망에도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요/ 아주 미미한 행복이라도 기대고 바라면 사랑은 이루어진데요/ 선생님 저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도 귀히 간직하고 있는 詩, [당신]은 혜린이 치료받으며 암센터에서 쓴 것이다.

[당신] 허혜린

차가운/ 눈송이에/ 달은 마음처럼// 슬퍼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우리에게/ 건넨 작은 희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그 작은 희망 속에서…// 당신을 위해/ 내가/ 행복을 느꼈다는 것을//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커서였을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느껴지고 슬픔을 지우고 평온을 찾으려는 마음도 읽힌다. 죽음은 우리를 진실한 사랑과 만나고 싶게 해주나 보다.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던 혜린! 지금이라도 만나 위로해 주고 싶다.

김현영은 (1988-2010) 뇌종양으로 아산병원에서 만났다. 성정이 한없이 고운 그는 병동의 어린 환자들의 누이나 엄마 역할도

했다. 수녀가 되어 병상의 아이들을 오래도록 돋겼다던 그의 아름다운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슬픈 웃음] 김 현영

두렵습니다/ 희망 없는 그 소리/ 흐르는 물소리까지// 무섭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서/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는 내가/ 수술실로 향하는 내가// 아파옵니다/ 밖에서 나 몰래/ 울고 계신 엄마 마음/ 집에 혼자 버려진 오빠 마음//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병동에서 다른 아이들을 내 몸처럼 돌봐주던 현영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짧은 생(生)이지만 참 값지게 살았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Seneca)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했다. 긴 생을 살아온 나는 여기 짧은 생을 살다간 두 어린 시인을 떠올리며 깊은 회상에 잠긴다.

오늘날의 양자 역학 이론은 우리 몸과 우주는 한결같이 원자로 구성돼 있고 우리가 죽으면 자동 분해돼 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몸속 원자가 흩어져 지구의 다른 것의 일부가 된다고 한다. 또한, 금세기 최고의 지성 Stephen Hawking (1942-2018)은 “사후세계도 없고 물론 천국도 없다. 인간이 죽으면 단지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혜린, 현영을 생각하면 물리학자들의 과학 이론도, Stephen Hawking의 우주 생성원리도 믿고 싶지 않다.

2023년 10월 10일